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권 회 영

홍 혜 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우울척도, 자기비난 척도, 수치심 경향성 척도를 각각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수치심은 자기비난을 통하여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우울해 하는데 있어 자기비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수치심에 선행한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청소년 상담과정에 가지는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

* 본 논문은 권회영의 2010년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홍혜영,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Tel : 02-300-0899, E-mail : hyhong@mju.ac.kr

현대사회에서 우울은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정신장애중의 하나이며, 정신질환 상위 10위 상병 중 우울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의 ‘우울증’에 대한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의 진료인원은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우울증 환자 증가율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이중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에서 우울증은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백서(2009)에 따르면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청소년의 40% 정도가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고, 교육장면과 상담 장면에서도 우울정서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건강한 청년기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성취가 중요하고, 청소년기 과업 성취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비난, 수치심 경향성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변수 간 인과적 관계모형을 설정한 후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자기비난, 수치심이 우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애란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성향으로(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적 성격자들은 거만하고 과장되게 자신을 중요하게 평가하거나 성공과 권력

에 대한 판타지에 몰두하고, 자신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자기애는 상담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자기애에 대하여 Kohut(1971)은 건강한 자기애가 발달하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이유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존감이 낮고, 자기확신감이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갖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포부를 형성하고, 이를 즐기며, 이상에 의해 인도받으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이 발달시킨 가치에 따라 자기목표를 시간과 공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였다(윤정혜, 2008, 재인용). 이렇듯 자기애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학적 구성 개념 중의 하나이며 청소년기의 자기애에 대하여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되는데, Akhtar(1989)는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려는 욕구가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는 열등감을 느끼며 칭찬과 힘에 대한 탐색이 있고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민감하여 평가 예민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부적응적 정서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차원이라고 하였다. 박세란(2004), 이상미 등(2009), Watson, Taylor와 Morris(1987), Wink(1991)등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강선희와 정남운(2002)도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임을 밝혀왔

다. 한수정(1999)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하다고 하였고, 박혜진(2003), 조수진(2007)도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으로 보고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높은 기대치에 스스로의 수행이나 업적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를 도저히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어서 무시할만하지 않을 때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험들이 지속되고 도저히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때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은 매우 극심하게 엄습하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구조를 가진 사람은 평가에 민감하여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타인의 반응에 상처를 입을 때, 우울한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격구조인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인 우울을 예견할 수 있는 변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로부터 자신을 확인받고, 칭찬받는 경험을 한 어린이는 건강한 자기애를 발달할 수 있게 된다(최규남, 2008). Erikson(1950)은 초등학교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구분하면서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자아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신이 가진 개인적 특성으로 자신을 묘사하기 시작하고 규정한다. 그러나 건강한 자기애를 발달해가고 있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중학교 시기를 포함한 청소년기가 되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인하여 자기애 발달에 변화가 도래하게 된다.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의존성을 함께 보이는데 이는 남과 다르면서도 남과 똑같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로 표현되는데 청소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저하되며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며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맹수현, 2009). 중학교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시기 부모로부터의 칭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적 관계, 가령 또래, 교사, 주변인 등의 인정과 지지, 수용, 등의 많은 정서적 영향과 경험을 통해 자기애를 발달시키며(Bleiberg, 1994). 이차성징과 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추상적 사고와 같은 인지 발달로 인한 자기애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기애를 발달시킨다. 청소년기에 자기애적 성향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의 발달이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고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과중한 입시스트레스와 성적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중학교 청소년 시기의 부적응적 자기애 성향은 고등학교 시기와 나아가 성인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중학생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를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에 관한 연구는 고등학생 이상에 치우쳐 있었으나(서선이, 2007; 신현민, 2009; 원주식, 2006; 이상미, 이숙, 2009; 조수진, 2008), 우울의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 청소년기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를 입증하였지만 내현적 자기애와 우

울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비난은 역기능적 인지적 변인중의 하나이다.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비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선희, 정남운(2002)은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과민성 취약성 요인이 평가 민감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세란(2004)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타인에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에게 과도하게 처벌적이거나 엄격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인지적 전략으로서 자기비난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역기능적 인지적 전략으로 자기비난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주관적 불편감인 우울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남기숙, 2008). 자기비난을 하는 개인은 환경에 대한 개인적 통제의 결여나 성취노력에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Allen, Horne, & Trinder, 1996, 김정미, 조현재 2009. 재인용). 자기비난과 우울간의 관계 관련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Beck(1983)은 역기능적 태도에 의해 우울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적응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울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Bruch(1977)와 Lightsey(1994, 1999)의 연구에서 긍정적 자동적 사고가 빈번할수록 우울에 덜 관련되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적을수록 우울에 더 많이 관련됨이 밝

혀졌으며, 역기능적 태도, 귀인양식, 지각된 자기능력 등의 인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한 연구들이 있었다(Hilsman & Garber, 1995; Metalsky et al., 1987; Robins et al., 1990; Robins, Hayes, Block, Kramer, & Villena.(1995); Tram & Cole, 2000). 우울에 취약한 이러한 인지변인들 중에서 특히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증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Weissman & Beck, 1978; Beck, 1983; Fresco, Heimberg, Abramowitz, & Bertram, 2006)이 있어 왔다. Gamefski, Kraaij, 그리고 Spinhoven(2001)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대처들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자기비난, 반추, 파괴화는 우울과 정적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에 역기능적인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이 함께 작용한다면 우울에 더 많은 설명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Gamefski, Legerstee, Kraaij, Kpmmer와 Teerds(2002)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적 대처 전략들이 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자기비난이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Kraaij, Gamefski, Wilde, Dijkstra, Gebhardt와 Doset(2003)은 인지적 대처 전략 중 자기비난이 우울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정미, 조현재(2009),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Bart Soenens(2008)는 자기비난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선하, 김춘경(2006) 또한 인지의 왜곡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비난을 가진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친밀감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기에 대인관계에서 친밀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대적이고 복종적인 형태로 행동하기에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

대립하게 되고, 협력과정을 방해하여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경로에서 자기비난이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을 매개하는 인지적 관계변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수치심은 모든 종류의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수치심은 자아와 자아 이상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자아가 자아 이상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부족함과 실패감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며, 억제적이고 수줍어하며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한다. 그래서 쉽게 감정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박진영, 2009). 한혜림(2003)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바람이 크며, 이런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Gramzow와 Tangney(1992)는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은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수치심에 예민한 집단이라고 하였다. 이인숙, 최해림(2005), 한혜림(2003)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윤성민, 신희천(2007)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자신에 대한 취약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수치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결과

적으로 불안, 우울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수치심이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수치심과 우울간의 관계 관련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수치심은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수치심은 자기를 향한 부정적 정서이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부정적이기에 수치심이 우울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우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을 가치 없고 열등하며 수치스럽게 보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되어졌다(곽진영, 2009; 박미하, 2009; 조효진, 2009). 그리고 심종온(1999)은 수치심 경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원인을 돌림으로써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수치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수치심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때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경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경로에 수치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는 Lutwak, Panish과 ferrari(2002), Lutwak, Sabbe, Blatt, Meganck, Jansen, De Grave, Maes, 그리고 Corveleyn(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성격적 자기비난과 행동적 자기비난 모두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형수(2008)는 자기비난을 사용한 인지적 대처가 높은 사람들이 수치심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우울로 연결되기 위해선 자기비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정미

(2009)의 연구에서도 자기비난적인 특성은 수치심에 선행하는 매개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기비난이 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치심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우울에 취약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취약한 인지적 요인인 자기비난의 경로에 있으며, 자기비난은 정서적 요인인 수치심에 선행하는 경로에 있으며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우울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는 단일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 때문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단기간의 개입만으로는 어려우나(권은미, 2006),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은 치료적 접근을 통한 변화가 용이하다. 따라서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정적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정승아, 오경자, 2005).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모형들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변인들에 의해 매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간에 좀 더 정교한 경로를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중립적이거나, 단독으로 우울에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내현적 자기애가 제3의 변인과 결합했을 때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현적 자기애가 어떤 경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심리상담적 개입을 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다른 변인들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그 중 원주식(2006)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인지적 요인이 매개변인임을 밝혔으며, 이진숙(2008)도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인지적 요인이 매개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신현민(2009)은 자기애와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인 인지적 변인이 매개변인임을 밝혔으며, 곽진영(2009)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매개로 연구하여 부정적 정서적 변인인 수치심이 매개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각각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취약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 연구되지는 않아, 인지적 취약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어떻게 우울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중학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취약요인인 자기비난과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의 방법을 고안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을 치료함에 있어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함께 파악

하여 치료한다면 우울에 대한 차별적 처치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 경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 → 자기비난 → 수치심 경향성 → 우울의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민감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에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인지적 전략으로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로는 역기능적인 인지가 부정적 정서를 유도한다는 Beck(1983)의 인지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 경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자기비난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수치심 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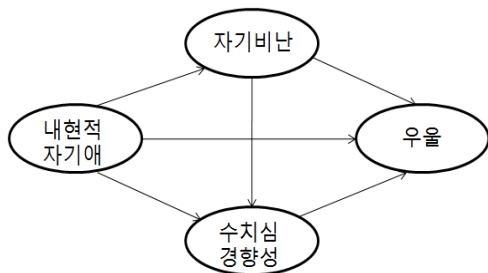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남, 여 중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척도에 응답이 누락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 3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358명이었으며, 남자 174명(48.6%), 여자 184명(51.4%)이었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로 기존의 자기애 척도에서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연구자가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목표불안정 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 과민·취약성 9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9문항 등 총 5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에 이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보고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91이었고, 각각의 하위차원의 Cronbach's α 는 .78~.92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현적 자기애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2이며, 하위요인

별로는 목표불안정 .88,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3, 착취·자기중심성 .75, 과민·취약성 .82, 소심·자신감 부족 .75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측정 도구는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상 장면에서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의 변화를 평가하는 기존의 우울 척도와 달리,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의 증상을 용이하게 측정하고 우울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 측정도구는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외국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다(Roberts, Lewinsohn & Seeley, 1991) CES-D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었다'(1)에서 '많이 있었다'(4)까지에 이르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조맹제와 김계희(1993)이 보고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다.

자기비난 척도(DEQ: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Blatte(1976)등은 임상적 문헌을 통해서 우울감과 빈번히 관련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150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우울경험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경험질문지의

척도중 자기비난 요인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의존심과 자기비난, 효능감의 3개의 하위요인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 척도로 Blatte의 우울경험질문지중 자기비난 요인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죄책감, 내적 공허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관계 악화,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서 오는 불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한다. DEQ의 자기비난척도는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Dunkley & Blankstein, 2000). 본 연구에서는 Blatte 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질문지를 조재임(1997)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한 것을 토대로 김현진(2002)이 요인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조재임(1997)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수치심 경향성 척도(PEQ-2: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Harder와 Lewis(1979)가 개발한 PEQ-2: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를 심종운(1999)이 번안한 개인 느낌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PEQ-2(Harder & Zelma, 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PEQ(Harder & Lewis, 1987)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 척도만 사용하였다. PEQ-2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느낀다'(5점)까지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수치심경향성 문항에는 '당혹감', '우스꽝스러운 느낌(tridulous)', '유치한 느낌', '혐오스런 느낌' 등이 포함된다. 심

중은(1999)의 연구에서 측정된 수치심 경향성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으며, 3주 간격으로 측정된 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또한 김은경(2009)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남녀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면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내현적 자기애 척도, 우울 척도, 자기비난 척도, 수치심 경향성 척도,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들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설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이 응답한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수거되었다.

측정변수 생성

내현적 자기애는 본 척도의 하위요인 5개를 그대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기비난과 수치심, 우울의 경우 단일요인척도이기 때문에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자기비난 잠재변인을 세 개의 꾸러미로 설정할 것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재임(1997)이 요인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하여 한 개의 잠재변

수를 구인하고 있음을 확인되었기에 잠재변수를 문항에 따라 세 개의 꾸러미로 나누었다. 그리고 수치심경향성 10문항과 우울 20문항도 단일요인임이 확인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문항수로 나누어 모형을 검증하였다. 자기비난은 3개의 지표(자기비난 1: 1번-7번 문항, 자기비난 2: 8번-14번 문항, 자기비난 3: 15번-22번 문항)로 나누고 수치심 경향성은 2개의 지표(수치심경향성 1: 1번-5번 문항, 수치심경향성 2: 6번-10번 문항), 우울은 2개의 지표(우울 1: 1번-10번 문항, 우울 2: 11번-20번 문항)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생성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현적 자기애,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고,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의 첨도와 왜도를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여(표 1)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분산팽

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내현적 자기애전체가 2.16, 자기비난이 2.67, 수치심경향성이 1.99로 산출되어 VIF의 기준($0.1 < VIF < 10$)을 만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NFI(Bentler-Bonett 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의 경우는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한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내현적 자기애,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에 모형 검증에 사용된 각 변수 간의 상관, 표준값,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내현적 자기애 전체는 자기비난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 = .72, p < .001$)을 나타내었으며, 내현적 자기애 전체와 수치심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 = .60, p < .001$)을 나타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 전체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 인	1	1-1	1-2	1-3	1-4	1-5	2	3	4
1. 내현적 자기애전체	-								
1-1 목표불안정	.68***	-							
1-2 안정욕구·거대자기환상	.70***	.24***	-						
1-3 착취·자기중심성	.71***	.28***	.54***	-					
1-4 과민취약성	.85***	.42***	.58***	.55***	-				
1-5 소심자신감부족	.69***	.40***	.28***	.31***	.54***	-			
2. 자기비난	.72***	.42***	.49***	.45***	.79***	.49***	-		
3. 수치심	.60***	.33***	.38***	.40***	.65***	.44***	.69***	-	
4. 우울	.46***	.14***	.39***	.30***	.58***	.30***	.59***	.58***	-
평 균	2.76	2.78	3.20	2.54	2.63	2.81	3.48	1.86	1.82
표준편차	.49	.80	.66	.57	.71	.61	.96	.80	.38
왜 도	.040	.013	.091	.632	.259	.006	.005	1.115	1.004
첨 도	.140	-.468	-.036	.687	-.238	-.108	-.438	.801	.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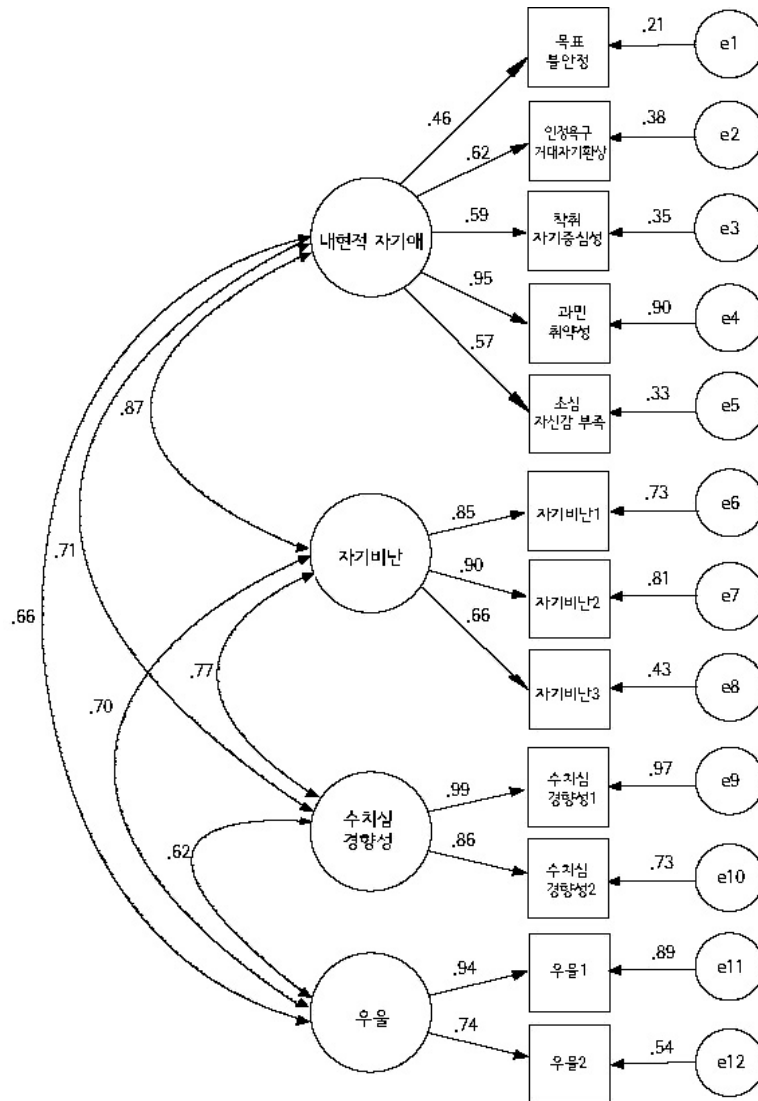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와 우울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 = .46, p < .001$) 이었다. 자기비난과 수치심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r = .69(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자기비난과 우울의 관계 또한 $r = .59(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수치심과 우울과의 관계는 $r = .58(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자기비난, 수치심, 우울의 측정모형 검증

내현적 자기애, 자기비난, 수치심, 우울의



모든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2. 내현적 자기애, 자기비난, 수치심, 우울의 측정모형 결과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42, CFI=.958, RMSEA=.080(90% 신뢰구간 .066-.094)로 나타났다. TL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배병렬, 2007; 홍세희, 2001), RMSEA는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됨을(Browne & Cudeck, 1993) 고려해 볼 때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를 살펴보면 잠재변인간 상관관이 .62-.87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요인부하량 12개는 .458에서 .950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12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구조모형 검증

전체모형은 역기능적인 인지가 부정적 정서를 유도한다는 인지이론을 근거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고려하였다(그림 3). 전체모형의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애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와, 내현적 자기애에서 수치심경향성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유의미하지 않는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비난을 활성화시키고 수치심에 선행하면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4).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모형과 수정모형의 검증 실시하였다. 전체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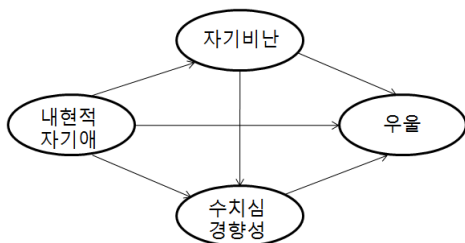


그림 3. 전체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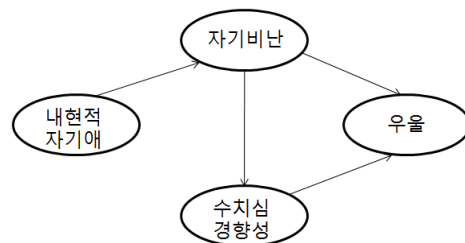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모형

표 2. 전체모형과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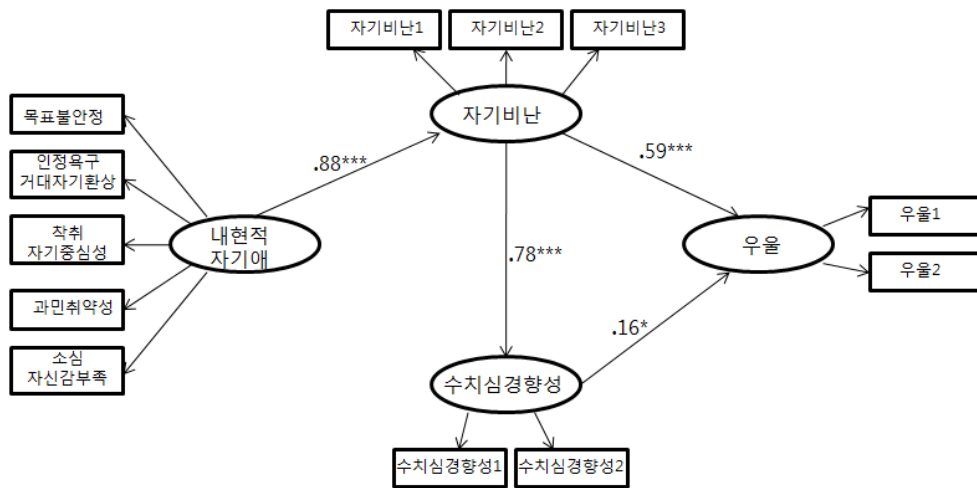
	χ^2	df	CFI	TLI	NFI	RMSEA (90% 신뢰구간)
전체모형	156.970***	48	.958	.942	.941	.080 (.066-.094)
수정모형	160.892***	50	.957	.944	.940	.079 (.065-.093)

* $p < .05$, ** $p < .01$, *** $p < .001$

전체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958, TLI=.942로서 90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도 .080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수정모형의 경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957, TLI=.944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RMSEA도 .079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위의 2개의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비교를 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서 $\Delta\chi^2$ 을 적용할 수 있지만,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이와 함께 RMSEA와 TLI 등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았다. 전체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차이($\Delta\chi^2=3.922$)가 낮다. 유의수준 .001, 자유도가 2일 때 χ^2 차이의 임계값인 5.99보다 작으므로 전체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가 수정모형이 전체모형보다 더 좋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정모

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는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비난의 표준화 계수는 .889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비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p<.001$),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표준화 계수는 .781로 자기비난 성향이 강할수록 수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기비난과 우울의 표준화 계수는 .591로 자기비난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도 증가하였으며($p<.001$), 수치심과 우울의 표준화 계수는 .160으로 수치심이 증가할수록 우울도 증가하였다($p<.05$).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수정모형(이하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의 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모수 추정치 내현적 자기애에서 자기비난, 자기비난에서 수치심, 자기비난에서 우울, 수치심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사이의 자기비난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비



* $p < .05$, ** $p < .01$, *** $p < .001$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5. 최종모형 분석결과

표 3.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내현적 자기에 → 자기비난 → 우울	6.20**
내현적 자기에 → 자기비난 → 수치심 → 우울	2.97**
자기비난 → 수치심 → 우울	2.11**

* $p < .05$, ** $p < .01$, *** $p < .001$

난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가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비난의 표준화 계수는 .88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비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p < .001$), 자기비난과 우울의 표준화 계수는 .59로 자기비난의 인지적 대처 방법을 사용할수록 우울의 부적응적 정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표준화계수는 .78로 자기비난이 증가할수록 수치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수치심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표준화계수는 .16으로 수치심이 증가할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Kline(1998)에 따르면 표준화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사이이면 중간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경로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에서 자기비난이 큰 정도의 영향(.88)을 미치고, 자기비난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큰 정도의 영향(.59)을 미치고, 자기비난이 수치심에는 큰 정도의 영향(.78)을 미치고, 수치심이 우울로 가는 경로에는 중간정도의 영향(.16)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Sobel 검증 결과, Z값은 6.20($p < .01$)으로 임계치가 1.96보다 크므로 매개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비난은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를 Sobel 검증한 결과, Z값은 2.97($p < .01$)로 이중매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비난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Sobel 검증 결과 Z값은 2.11($p < .01$)로 매개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에, 자기비난, 수치심, 우울의 모형 총 효과 분해

최종모형의 효과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들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등이 존재한다. 직접효과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하나 이상의 매개변인의 효과를 거쳐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을 자기비난과

표 4. 변인들의 모형 총 효과 분해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내현적 자기애	자기비난	.889***	2.400***	-	-	.889***	2.400***
자기비난	수치심	.781***	.595***	-	-	.781***	.595***
	우울	.591***	.263***	.125***	.056***	.717***	.318***
수치심	우울	.160***	.094***	-	-	.160***	.094***

* $p < .05$, ** $p < .01$, *** $p < .001$

수치심이 매개할 경우 우울에 미치게 되는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 내현적 자기애에서 자기비난으로 가는 총 효과는 .889로 가장 크고, 직접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자기비난에서 우울로 가는 총 효과는 .717이며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591, 자기비난에서 수치심의 경로를 거쳐 우울로 가는 간접효과는 .125를 나타내고 있다. 수치심에서 우울로 가는 총 효과는 .160으로 직접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비난에서 수치심으로 가는 총 효과는 .781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접효과만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며 자기비난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과 수치심에의 경로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을 예언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비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비난, 수치심, 우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자기비난, 수치심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비난과 수치심, 자기비난과 우울, 수치심과 우울에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비난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변인이었으며,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는 Cooper(1998)의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높은 상관이 있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성격적 자기비난과 행동적 자기비난이 수치심과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Lutwak(2002), Cheung, M. S. P., Gilbber, P. 그리고 Irons, C. (2004)와 일치하며, 수치심을 자각할수록 자기비난 수준이 높았던 정형수(200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비판적인 인지양식이 수치심경험을 가중시킨다는 이혜미(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이 높은 상관이 있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던 연구(Gramzow & Tangney, 1992; Hibbard, 1992), 수치심이 일관되게 자기애 대

한 부정적인 자기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이 인숙, 최혜림(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불안정하여 자기비난을 경험하게 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이 높을수록 자기비난의 정서인 수치심 수준도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수치심이 취약성이 되어 다시 우울의 경로에 영향을 미침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수치심경험 수준이 높았을 때의 인지적 대처전략을 밝힌 조효진(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수치심이 클수록 우울경향이 커진다는 것을 밝힌 이인숙, 이지연(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하게 함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 박세란(2004)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며, 타인의 비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에 통제집단,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우울을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상미 등(2009)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은 정적상관이었음을 밝혔으며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과의 우울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더 우울함을 보고하였다. 강선희, 정남운(2002)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이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집단보다 더 우울하다고 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청소년은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취약하기에 자신을 비난하고, 역기능적 인지대처 전략인 자기비난의 대처방식을 사용하기에 자신에 대하여 처벌적이다. 자기처벌을 하는 자기비난을 하기에 상처를 잘

입는 민감성을 경험하며, 자기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치심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부적응적 정서인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비난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 많은 연구(이상미 등, 2009; 이진숙, 2008; Robinson & Dupont, 1992; Watson, Tylor & Morris, 1987)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애 성향이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지만 과민, 취약한 신경증적인 민감한 특성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자기애적 성향과 상호작용하여 좀 더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더욱 심한 부적응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한 한혜림(2004)의 주장과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자가 우울하다는 증상을 설명하는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만약 매개변인인 자기비난을 제거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면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였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인지적 취약요인인 자기비난이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구조에서의 취약함과 결합하여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취약한 성격구조로 인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기에 타인의 비난을 늘 피하려고만 하는 성향이 있고, 타인을 비

난할 근거를 찾지만, 더 이상 타인에게 잘못을 돌릴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몰입하여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칠 것이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므로 우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지나친 민감함과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스스로 대인관계에서 무력하게 만들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하여 자신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Abela와 Taylor(2003)가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자기비난이 우울의 증상을 예측한 것보다도 같은 결과이며(Luyten et., 2007), 내현적 자기애의 취약한 성격구조가 자기비난을 활성화시키며, 우울에 취약하도록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비난이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이었다. 자기비난이 강력한 변인이었던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은밀히 원하고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자기비난의 요인이 가장 관련이 있었던 듯 하다. 자기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깊은 우울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비난을 하는 개인은 성취 노력에 실패할 때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한다(Allen, Horne, & Trinder, 1996, 김정미, 조현재 2009. 개인용). 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와 Zuroff(1982)도 자기비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나타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정한 목표와 역할 기대의 성취를 통해 자기 가치감이 창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에 대해 방해받는 것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며(Hokanson & Butler, 1992) 이러한 성향은 자기비난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김영순(2007)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초기부적응도식인 불신도식, 절대기준도식, 정서적 결핍도식, 자기우월도식은 자기비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비난이 초기 발달단계에서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에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이 인정이나 사랑을 받으려면 이상적이고 높은 목표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인지도식을 가지면서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비난을 하는 개인은 자신이 설정한 성취 노력에 실패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기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자기비난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다는 인지적 왜곡을 경험할 수 있다(Hammen, Ellicott, Gitlin, & Jamison, 1989;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 차원을 가진 청소년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성취스트레스가 있는지 등의 자기비난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비난에 대한 개입을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비난적인 태도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에는 내담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주며 성취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에게 인지시키고 충분히 인정해줄 때 자기비난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영순(2007)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자기비난의 경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변인 중 친구 지지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

관을 보여 주었고, 부모의 지지도 상당히 높았음을 볼 때 부모 교사 등의 다각적인 지지와 인정을 해 줄 때 자기비난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Beck(1983)은 자기비난 성향이 있는 내담자를 치료할 때 내담자의 관찰과 결론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훈련을 통하여 자기 언어를 인식하게 하고 내담자가 얼마나 부정적인 추론을 하는지에 대하여 상담관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Beck(1983)은 자기비난의 성향이 있는 내담자를 치료할 때 재귀인기법, 역할연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는데, 재귀인기법은 환자가 혐오적인 사건을 비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부족함에 귀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 때 상담자와 내담자는 논리적인 법칙에 근거하여 환자가 저야할 책임을 지도록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의 모든 책임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적인 경험에 기여하는 다양한 가외요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담자는 객관성을 얻음으로써 자기비난의 짐을 덜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기비난의 인지적 접근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비난이 있음을 자각하도록 해서, 이런 자각이 증가됨에 의해 자기비난적인 사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비난의 성향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자기비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 수정되는 경험으로 인해 내담자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사이의 관계에

서 수치심은 자기비난을 거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 우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내현적 자기애 → 자기비난 → 수치심 → 우울 경로에서만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은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박세란, 2004; 이상미 등, 2009; 강선희, 정남운, 2002; Watson, Taylor, & Morris, 1987; Wink, 1991)와는 일치하는 결과였지만,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차원이,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상처를 입어 수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경로를 밝힌(곽진영, 2009)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의 정서적 변인보다, 인지적 취약 변인인 자기비난의 경로를 거쳐 갈 때에만 우울이 강력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구조가 정서적 취약성인 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을 통해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자기비난으로 유발된 수치심이 우울을 강력하게 설명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변인이 정서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Weissman & Beck, 1978; Beck, 1983; Fresco, Heimberg, Abramwitz, & Bertram, 2006)과 일맥상통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도 상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과의 경로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입증되어 오고 있으며, 건강한 자기애보다는 병리적인 자기애인 내현적 자기애가 인지적 취약요인중의 하나인 자기비난, 취약한 정서인 수치심, 부적응적 정서인 우울

이 서로 순환되어 각 경로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인지적 요인이 정서적 요인에 선행함을 확인한 것으로써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이론적 모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비난과 우울의 관계에서 수치심은 우울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비난적인 특성은 우울과 수치심을 활성화시키고 수치심은 우울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치심 경험이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대인관계 문제에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이혜미(2009)의 연구와,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 사회적 비하상황에서의 수치심이었다는 것을 보고한 정형수(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수치심 경험이 부적응적 대처와 매개하여 우울로 심화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밝힌 조효진(2009)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수치심이 우울의 경로에 있다면 수치심의 부적응적 정서를 상담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수치심의 기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상담과정에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유로워지는 방법으로는 신뢰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새로운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야말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진실한 사랑이란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적이며 긍정적인데 이런 사랑이야말로 수치심으로 힘들어 하는 내담자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내면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외부의 나의 모습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이야기

이며 이는 정작 세상을 대처해 나갈 힘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심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반드시 내담자와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치심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만나고 표현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 할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감정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Bradshaw는 수치심이 감소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감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처받기 쉬운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숨기는 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1988, 오재은, 2006 재인용).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장하는 내담자를 바라보며 상담자는 내담자의 수치심의 모습을 감싸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치심이 치유된 이후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지의 모습을 상담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취약한 성격구조 그 자체로 우울에 기능하기보다는 자기비난과 수치심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이 정서적 변인인 수치심에 선행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자기비난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적 상담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비난의 인지적 변인과 수치심의 정서적 변인이 우울에 이르게 하는 경로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울을 상담과정에서 치료함에 있어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변인을 약화시켜 우울의 부적응적 정서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적 자기애 차원에서의 우울로 가는 경로와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 정서적 변인인 수치심의 경로를 확인해 보았지만, 내현적 자기애에서 우울의 경로로 이어지는 더욱 다양한 심리내적인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격을 비롯한 심리내적 변인 외에도 사회·경제적 변인, 가족변인 등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경로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경로와 변인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및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비난, 수치심이 어떻게 우울의 경로에 이르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상담적 개입을 할 때 우울에 대한 차별적 처치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전 단계의 연구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보다도, 자기비난의 변인이 내현적 자기애와 결합하였을 때 더 강력하게 우울의 정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자기비난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성을 제시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비난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는 자기비난이 수치심의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수치심이 우울을 활성화시키며, 자기비난이 우울에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적 변인인 자기비난이 정서적 변인인 수치심에 선행하여 우울에 이끈다는 경로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우울에 경로에 이르게 하는 변인으로 자기비난과 수치심이 있다는 변인임을 밝히고, 자기비난과 수치심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0).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 <http://www.hira.or.kr>
- 곽진영 (2009).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환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한국아동학지, 27(6), 249-261.

- 김영순 (2007). 청소년의 자기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을 예측하는 발달적 인지 대인관계 모형검증. *청소년학연구*, 14, 225-253.
- 김정미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 205-225.
- 김정미, 조현재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및 의존성의 역할: 대구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 283-306.
- 남기숙 (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하 (2009). 신학대학교 학생과 일반대학교 학생의 수치심경향성, 자기불일치 우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 분석.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Bart Soenens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진 (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맹수현 (2009). 아동·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자기애 변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선이 (2007).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조절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현민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중온 (1999).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아동청소년백서 (2009).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보건복지가족부.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7.
- 윤정혜 (2008). 자기애 측정도구 ISP 타당화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오재은 (2006).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서울: 학지사.
- 이상미, 이 숙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3(2), 15-28.
- 이인숙, 이지연 (2009). 여성의 대상관계, 수치심,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1951-1969.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651-670.
- 이진숙 (2008).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미 (2009). 수치심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 자기비판적 인지양식과 회피철수대처의 매개 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좌절 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 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887-901.
- 정형수 (2008). 수치심을 지각하는 정도, 비난의 방향 및 대처방식과 우울과의 관계. *인간이해*, 29, 1-18.
- 조맹제, 김계희 (1993). 主要憂鬱症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진단적 타당성 연구, *神經精神醫學*, 32(3), 381-399.
- 조수진 (200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우울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재임 (1997).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조효진 (2009).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규남 (2008). 초등학생의 자기애적 성향과 성취 목표지향성과의 관계.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내재적 자기관련 인지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3).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workshop 자료집.
- Abela, J. R. Z., & Taylor, G. (2003). Specific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in school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408-418.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khtar, S. J.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escriptive featur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 505-530.
- Allen, N. B., Horne, D. J. L., & Trinder, J. (1996). Sociotropy, autonomy, and dysphoric emotional responses to specific classes of stress: A psychophysiological 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5-33.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265-290. New York: Raven.
- Blatt, S. J., Quinlan, D., Chevron, E., McDonald, C., & Zuroff, D.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113-124.

- Bleiberg, E.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 30-51.
- Bradshaw, J. E. (1988). *Home 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Bantam Books.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ch, M. A. (1997). Positive thoughts or cognitive balance as a moderator of the negative life events-dysphoria relationship: A reexamin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38.
- Cheung, M. S. P., Gilbber, P., & Irons, C. (2004). An exploration of shame, social rank and rumin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143-1153.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resco, D. M., Heimberg. R. G., Abramowitz, A., Bertram, T. L. (2006). The effects of a negative mood priming challenge on dysfunctional attitudes, explanatory style, and explanatory flexibilit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167-183.
- Gam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131-1327.
- Gamefski, N., Legerstee, J., Kraaij, V., Kpmmer, T., &Teerds, J. (2002). 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 comparison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Adolescence*, 25, 603-611.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69-376.
- Hammen, C., Ellicott, A.,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r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e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319.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Hilsman, R., & Garber, J. (1995). A test of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Academic stressors, attributional style, perceived competence, an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70-380.
- Hokanson, J. E., & Butler, A. C. (1992). Cluster

- analysis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73-280.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aaij, V., Garnefski, N., Wilde, E. J., Dijkstra, A., Gebhardt, W., & Dose, L. (2003). Negative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Bonding and Cognitive Coping as Vulnerability Factor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2, June 2003, 185-193.
- Lightsey, O. R. Jr. (1994). "Thinking positive" as a stress-buffer: The role of positive automatic cognitions in depression and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25-334.
- Lightsey, O. R. Jr. (1999). Positive thoughts versus states or mind ratio as a stress moderator: Findings across four stud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469-482.
-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2002).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09-916.
- Lutwak, P., Sabbe, B., Blatt, S. J., Meganck, S., Jansen, B., De Grave, C. Maes, F., & Corveleyn, J. (2007).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Relationship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severity of depression, and clinical presentation. *Depression and Anxiety*, 24, 586-596.
- Metalsky, G. I., Halberstadt, L. J., & Abramson, L. Y. (1987).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Toward a more powerful test of the diathesis 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reformulated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612-617.
- Robins, C. J., Block, P., & Peselow, E. D. (1990). Cognition and life events in major depression: A test of the mediation and interaction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99-313.
- Ro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62-467.
- Robins, C. J., Hayes, A. M., Block, P., Kramer, R. J., & Villena, M. (1995). Interpersonal and achievement concerns and the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symptom specificity hypotheses: A prospective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1-2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Tram, J. M.,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on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753-760.
- Watson, P. J., Taylor, D.,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oronto, Canada.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원 고 접 수 일 : 2010. 6.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0. 8. 1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20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blame and shame

Hee Young Kwon

Hye Young Ho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self-blame and sham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whether self-blame and shame would mediate in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For the current, 358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dministering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self-blame and shame scale to participants and were analyzed by estimat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self-blame and shame 2) covert narcissism showed full mediation effects on depression through self-blame. 3)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were also mediated by a route from self-blame to shame. This study suggests that self-blame is a risk factor of depres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showing covert narcissism and also indicates that shame might precedes self-blame.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self-blame, shame